

영어 -ly 유형 인식견지부사의 담화표지 기능 이해도 분석: 한국인 EFL 학습자와 원어민 화자를 대상으로

이유라¹ · 유석훈^{1*}

¹고려대학교 언어학과

Comprehension Analysis on the Discourse Marker Function of English -ly Type Epistemic Stance Adverbials

Youra Lee¹ & Seok-Hoon You^{1*}

¹Korea University

ABSTRACT

English -ly adverbials (LY) with epistemic modality are frequently used as discourse markers (DM) in spoken language. In this paper, LY DM is defined as an epistemic stance marker. The experiment for this study aims to analyze Korean EFL learners' comprehension of LY used as a DM on the basis of the hypothesis that they would perceive LY differently from how English native speakers perceive them. In order to conduct the experiment, previous studies on DMs were thoroughly examined to establish the theoretical framework. Based on the framework, the Discourse Marker Interpretation Test (DMIT) was designed. The research data collected through the test were analyzed using quantitative methods. Additionally,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supplement the interpretation of the research results. The experiment mainly determined that, unlike English native speakers, who properly interpreted LY with their DM function, Korean EFL learners are inclined to interpret LY used as DMs simply with their lexical meanings (the dictionary definition). Results suggest tha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for Korean EFL learners to commit more errors when encountering LY DMs.

Keywords: discourse marker function, epistemic stance adverbials, epistemic modality, hedge, -ly adverbs, Korean EFL learners

1. 서 론

특정 품사로 한정되지 않는 담화표지는 그 목록과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학자마다

* 이 논문은 제1저자의 2020년 석사학위논문을 발전시켜 전체적으로 대폭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 Corresponding author: syou@korea.ac.kr



Copyright © 2020 Language Education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under CC BY-NC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용어 사용 및 정의에 차이가 있다. 담화표지 외에도 담화연결사(discourse connective) (Blakemore, 1987, 1992), 화용불변화사(pragmatic particle) (Ostman, 1982), 화용표지(pragmatic marker) (Brinton, 1996; Fraser, 1996), 담화불변화사(discourse particle) (Aijmer, 2002)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본고에서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담화표지(discourse marker) (Fung & Carter 2007; Jucker, 1993; Lewis, 2006; Schiffrin, 1987; Schourup, 1999)라는 용어를 채택하여 사용한다.

담화표지는 원활한 담화의 흐름을 돕기 위한 의사소통 언어기제로 화자의 의도에 따라 통사적인 문장 구조에서 벗어나 임의적(optional)¹⁾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때 담화표지는 명제적 의미 가치를 전혀 혹은 거의 지니지 않기 때문에 비명제적(non-propositional) 혹은 비진리조건적(non-truth-conditional)인 특성을 갖는다(Levinson, 1983; Lewis, 2006; Schourup, 1999). 다른 한편으로 담화표지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 믿음, 확신, 전제 등의 인식(epistemic) 속성을 반영할 수 있는데(이한규, 2011; Gupta, 2006). Fung & Carter(2007)는 basically, actually, really, obviously, absolutely, exactly 등의 부사류를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담화표지로 제시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안동환과 이상도(1993)는 allegedly, apparently, certainly, clearly, obviously, possibly, probably, surely 등을 서법부사(modal adverb)로 제시하였으며 이것들이 인식양태성(epistemic modality)²⁾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양태성(modality)은 크게 인식양태와 의무양태(deontic modality)³⁾로 구분될 수 있다(cf. Palmer, 2001). 인식양태는 “명제(proposition)의 확실성(certainty)에 대한 화자의 믿음, 지식, 진실성과 관련된 것(이기갑, 2006, p. 67)”으로, 이은주(2010)는 Conrad & Biber(2000)와 Karkkainen(2003)에 따라 인식양태성을 갖는 부사류를 인식견지부사류(epistemic stance adverbials)로 구분하였다. 그녀는 견지부사가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비중을 고려했을 때 그 형태 및 의미 분석과 더불어 화용적인 기능과 실현 양상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인식양태의 속성을 지닌 영어 -ly 부사(이하 LY)가 담화표지의 역할로 실제 구어 담화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지만, 비모국어 화자인 국내 영어학습자가 그것을 담화표지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⁴⁾ 이에 따라, 영어 모국어 화자(이하 NS)와 비교했을 때 비모국어 화자인 한국인 EFL 학습자 (이하 KNNS)가 LY 담화표지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본 논문의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용어 번역 시 첫 출현에 한해서 한국어 번역 뒤에 괄호로 원어를 표기하였음.

2) 안동환과 이상도(1993)는 epistemic modality에 대해 ‘인식서법성’으로 번역하였다.

3) 의무양태는 “실제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사태(event)”와 관련된 것이다(이기갑, 2006, p. 77).

4)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어 담화표지 사용 양상 연구(E. Park, 2017; Y. Lee, 2016; White, 2011; Y. Park, 2003)를 살펴보면, 비모국어 화자인 한국인의 담화표지 사용이 모국어 화자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i) 한국인 EFL 학습자와 원어민 화자 간 영어 -ly 유형의 인식견지부사를 담화표지로 인지하는데 차이가 존재하는가?
- ii) -ly 유형의 인식견지부사의 담화표지 기능을 인지하는데 두 집단 간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가?

본 연구는 중위권 이상의⁵⁾ 영어 능력을 보유한 한국인 EFL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계하였으며, 피험자의 영어 능숙도 측정은 일정 TOEIC 점수를 기준으로 하였다(자세한 내용은 3.2.1 참조).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먼저 담화표지 기능 및 인식견지부사에 대한 기존 연구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서 미국현대영어말뭉치인 COCA(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와 SOAP(Corpus of American Soap Operas)의 구어 자료를 활용하여 담화표지해석 검사지(Discourse Marker Interpretation Test, DMIT)를 제작하고 실험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수집된 자료의 통계 분석을 통해 실험 결과를 해석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담화표지의 역할

Levinson(1983: 87-88)의 담화표지에 대한 초기 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 발화와 선행 담화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는 많은 어구가 있다. 발화의 개시에서 사용된 but, therefore, in conclusion, to the contrary, still, however, anyway, well, besides, actually, all in all, so, after all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단어는 일반적으로 진리 조건적 논의에 저항하는 ... 의미 요소를 가진 것으로... 그것을 포함하는 발화가 어떻게 선행 담화의 일부에 대한 반응, 혹은 연속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Schiffrin(1982, 1987, 1998)은 담화표지가 선행 발화와 후행 발화 사이에서 담화를 일관성(coherence)있게 만들어주는 순차적 의존성(sequentially dependence)을 지닌 것으로 문장 구조에 통사적으로 종속되지 않은 채 담화의 경계(boundaries of talk)를 표시

5) 화용적 능력에 속하는 담화표지의 습득은 기초 어휘나 문법 학습을 더 필요로 하는 하위권 수준의 영어 학습자보다는 중위권 이상의 영어 학습자에게 더 유용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작한 DMIT 문항은 예비실험 결과 하위권 영어 학습자가 수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DMIT 수행에 큰 무리가 없는 중위권 이상의 영어 학습자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해준다고 제안하였다. Schourup(1999)은 이러한 일관성을 연결성(connectivity)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연결성을 상호-발화(inter-utterance) 일관성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담화표지 속성으로 제안하면서, 이것들이 명제적 내용 측면에는 큰 기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비진리조건성(non-truth-conditionality)과 임의성(optionality)을 함의한다고 보았다.

관련성 이론(Relevance Theory)의 틀 안에서 담화표지를 분석한 Blakemore(1987, 1992)는 그것이 나타내는 추론적 연결로 인해 담화의 관련성에 제약이 가해진다고 제안하였다. 즉, 담화표지가 특정 의미를 지니지 않은 채 발화의 내용을 화자의 의도대로 조작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때의 담화표지는 어휘적 혹은 표상적(representational) 의미를 지니지 않은 채 발화의 개념적 표현을 어떻게 조작할지에 대한 지시로 구성된 절차적(procedural) 의미만을 지니게 된다.⁶⁾

다음으로 선행 발화와 후행 발화 사이에서 담화의 경계를 표시하는 동시에 두 발화의 단위를 순차적으로 연결해주고 있는 담화표지의 한 예를 살펴보자. 예문 (1)의 *of course*⁷⁾는 양보의 의미를 갖는 접속사와 함께 담화표지로 사용되었다. 이들의 결합은 *but*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선행 발화에 대한 대조의 역할을 강화시킨다(Aijmer, 2013).

- (1) Then there might possibly be an interaction, *but* all the time, *of course*, he'd dominate it with his grasp of the thing and if we were able to come up with anything, if he took hold of it, then he'd elaborate it in his own particular way. (Aijmer, 2013, p. 95)

담화표지는 또한 의견 불일치가 뒤따르는 평가, 거절된 요청 및 제안 등의 대답으로 발생할 수 있는 체면위협행위(face-threatening acts, FTAs)를 완화시키는 체면위협완화제(face-threat mitigator)의 역할을 수행한다(Brinton, 1996; Jucker, 1993). 예문 (2b)의 *well*은 요청에 대한 거절 발화에 앞서 대화 상대방의 체면 손상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담화표지로 볼 수 있다.

- (2) a. can I just see them
b. um *well* I'm not allowed to to do that (Jucker, 1993, p. 444)
- (3) a. Easy to get caught up in it.
b. *Totally. Totally.* It's our nature. And I'm trying to work against that. (COCA_SPOKE: CNN_KING)

6) Fraser(1999)에서 재인용하였음.

7) Aijmer(2013)는 English-Swedish Parallel Corpus (Altenberg & Aijmer 2000)로부터 추출한 *of course*에 대한 상응어구로 *definitely, obviously, certainly, surely, probably* 등을 제시하였다.

이원표(2001)는 발언권을 얻기 위해 말 가로채기나 말을 중단시키는 행위는 웃음이나 농담 등으로 체면 손상을 최소화하려는 시도가 선행된다고 하더라도, 적지 않은 체면위협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본고의 DMIT에서 발췌한 예문 (3b)의 *Totally*, *Totally*는 따라서 자신의 말차레를 시작하기 전 상대방의 말을 중단시킨 것에 대한 상대방의 체면 손상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의 표 1은 Brinton(1996)의 9가지 일반적인 담화표지 기능을 정리한 것이다.

a부터 g까지는 텍스트 모드(textual mode)의 담화표지로 담화를 응집력 있는 구절로 만들어주며 문맥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관련성의 언어이다. 한편, h부터 i까지는 대인 모드(interpersonal mode)로 화자와 청자 간에 협동 및 친밀감 실현, 화자의 태도 및 평가 표현, 존중 표현, 체면 유지 등 사회적 교환의 성격을 지닌다. Brinton은 담화표지의 기능

표 1. 담화표지 기능 (Brinton, 1996, pp. 37-38)

담화표지 기능 목록	
a	담화 시작 및 종결 (to initiate or close discourse)
b	발언권 획득(말 끼어들기) 및 포기 (to acquiring or relinquish the floor)
c	발언권 유지 (to serve a filler or delaying tactic used to hold the floor)
d	새로운 화제로 전환 혹은 부분적 화제 전환 (to indicate a new topic or a partial shift in topic)
e	이전 화제로 재개 (the resumption of an earlier topic)
f	신정보 혹은 구정보 표시 (to denote new or old information)
g	순차적 의존성 표시 혹은 명시적인 대화 함축을 통한 관계 규명 (to mark sequential dependence; to constrain the relevance of one clause to the preceding clause by making explicit the conversational implicatures relating the two clause)
h	발화정정 (to repair one's own or others' discourse)
i	선행발화에 대한 응답 및 반응, 혹은 후행발화에 대한 태도 (to express a response, reaction or attitude towards the preceding or the following discourse)
	맞장구 (to express back-channel signals of continued attention)
	주저 표시를 위한 헤지 (hedge to express speaker tentativeness)
	공유 가설 확인 (to confirm shared assumptions)
	이해 표현 (to express understanding)
	확인 요청 (to request confirmation)
	존중 표현 혹은 체면 유지 (to express deference, or save face)

이 학자마다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듯이 하나의 담화표지가 단일 기능이 아닌 여러 기능으로 중복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pp. 36-39).

2.2. -ly 부사의 인식양태성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LY는 형태적으로는 타 품사의 낱말에 접미사 -ly 가 결합하여 생성된 개방형 파생부사로(Quirk, Greenbaum, Leech, & Svartvik, 1985), 명제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채 명제에 대한 확실성에 대한 화자의 믿음, 지식, 진실성 등의 태도를 반영하는 인식양태성을 가지고 있다.⁸⁾ 이은주(2010)는 이와 같은 부사를 견지부사류(stance adverbials)로 보았으며, Conrad & Biber(2000), Karkkainen(2003)에 따라 견지부사를 ‘인식(epistemic), 태도(attitude), 스타일(style)’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유형인 ‘인식’은 어떠한 명제에 대한 확실성/불확실성, 실재성, 제한성에 관한 화자의 평가를 나타내는 부사(예: certainly, definitely, apparently, probably)로, 본고의 연구대상어 LY가 이 유형에 해당한다. 두 번째 유형인 ‘태도’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감정 및 가치 판단을 나타내는 부사(예: surprisingly, astonishingly, curiously)이며, 마지막 ‘스타일’ 유형은 정보가 전달되는 양식(manner)을 나타내는 부사(예: honestly, frankly, confidently)를 말한다. 표시연(2018)은 이러한 견지부사를 ‘헤지(hedge)’⁹⁾ 표현으로 보았다. 헤지란, “수반되는 명제의 진리 값에 대한 완전한 기여의 결여 또는 그러한 기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기 위하여 사용되는 언어 수단(Hyland, 1998, p. 1)”으로, “화자가 청자와의 관계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발화 수위를 (간접적으로) 조절(이찬규, 노석영, 2012, p. 246)”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이다.

이상으로 2장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LY는 담화를 응집력 있는 구절로 만들어주며 문맥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언어이자, 체면위협 완화 및 헤지 기능과 같은 담화 참여자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돕는다는 점에서 담화표지의 텍스트적 기능과 상호적 기능을 갖는다(Brinton, 1996). 또한, 명제의 확실성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인식양태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본고의 연구대상어 LY를 인식견지부사류로 구분해볼 수 있다.

8) 국내 많은 논의에서 ‘양태성’에 대해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로 정의하였다(김지은, 2001; 명정희, 2018; 시정곤과 김건희, 2009; 이기갑, 2006 등).

9) Biber et al.(1999)은 헤지 및 강화사(boosters)를 인식견지표지(epistemic stance markers)라고 제안하였는데, 이러한 언어 요소는 확실성(또는 의심), 현실성(actuality), 정확성(precision), 한계성(limitation)의 정도를 전달한다.

3. 연구 방법

3.1. 담화표지해석 검사지 제작

실험을 진행하기에 앞서 LY 담화표지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할 수 있는 ‘담화표지해석 검사지(Discourse Marker Interpretation Test, DMIT)’를 제작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문장에서 통사적으로 필수 성분이 아닌 담화표지는 주로 문장과 분리되어 담화의 경계를 표시한다(Schiffrin, 198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현대영어말뭉치인 COCA를 이용하여 문장과 독립적으로 출현한 LY 목록을 추출하기 위해 List 기능에 마침표와 쉼표를 활용하여 총 3차례 검색을 수행하였다. 검색어의 문법 사항은 모든 부사[adv.ALL]로 제한하였으며, 구어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LY만을 검색하기 위해 섹션은 구어로, 최소 빈도수 5로 설정하였다. COCA에서 검색된 목록들 중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인식견지부사에 해당하는 LY 목록만을 추려내면 검색어 1은 10개, 검색어 2는 12개, 검색어 3은 11개가 남는다. 그리고 세 번의 검색에서 중복하여 출현한 LY는 ‘absolutely, exactly, definitely, totally, certainly, obviously, clearly, apparently’ 총 8개로 DMIT에 사용할 연구대상어로 최종 결정하였다.

표 2는 앞서 표 1의 분류¹⁰⁾를 기반으로 DMIT 문항으로 사용할 담화표지의 세부적인 기능을 12가지로 구분한 것이다.

표 2. 담화표지 기능 분류 및 검사지 문항 번호

문항 번호	담화표지 기능 분류
Q1	선행 발화에 대한 태도 [attitude towards the preceding discourse] eg., A: Let's get back because she'll never get home. B: Well, <i>actually</i> we don't have that much more. (Schiffrin, 1987, p. 114)
Q2	선행 발화에 대한 응답 및 반응 [attitude towards the following discourse] eg., A: Are you from Philadelphia? B: <i>Well</i> I grew up uh out in the suburbs. And then I lived for about seven years up in upstate New York. (Schiffrin, 1987, p. 106)

10) Brinton(1996)의 기능들 중 몇 가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표 2의 기능 분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표 1 a의 ‘담화 시작’은 b의 ‘발언권 획득’과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된다. e의 ‘신정보 혹은 구정보 표시’는 d의 ‘새로운 화제로 전환’, ‘이전 화제로 재개’와 유사하다. 앞서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f의 ‘순차적 의존성 표시’와 i의 ‘체면 유지’는 대부분의 담화표지에 내재하고 있는 일반적인 속성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i의 ‘확인 요청’은 ‘공유가설 확인’과 같은 맥락으로 사용된다.

표 2. 계속

문항 번호	담화표지 기능 분류
Q3	주저 표시/헤지 [expressing tentativeness, hedging] eg., A: Cheers, Phil. All right, I'll have to start on it at lunch time. B: Yeah, <i>whatever</i> . (서경희, 2016, p. 151 재인용)
Q4	(신) 화제 전환 [topic shift] eg., I don't think we can go tomorrow. It's David's birthday. <i>Incidentally</i> , when is your birthday? (Fraser, 1996, p. 187)
Q5	(구) 화제 재개 [the resumption of an earlier topic] eg., A: we didn't wrap up for you B: Oh <i>incidentally</i> , you know about Malcolm putting his dislocating shoulder. (Stenstrom, 1994, p. 160)
Q6	발언권 획득/말차례 시작 [initiator, interjector, turn-taking] eg., A: I am fine B: <i>Okay</i> . hh, do you have Marina's telephone number? (서경희, 2016, p. 136 재인용)
Q7	발언권 유지/말채움어 [a filler, delaying-tactic, turnholder] eg., Oh, Ben, when he walked into the door-- <i>of course</i> , you know, he had to have the - he had to go to the hospital with Shawn. (서경희, 2016, p. 165)
Q8	담화 종결 [closer, turn-transition device] eg., He sends his regards <i>actually</i> . (Fung & Carter, 2007, p. 413)
Q9	존중 및 인정 [acknowledgement, showing deference] eg., A: We are totally different bands. B: <i>Totally</i> . (K. Suh, 2011, p. 175)
Q10	맞장구 [back-channel] eg., A: We had reached the point of thinking that we weren't going to be able to reach a policy decision and so we. B: <i>That's right</i> . A: must tell these guys that we'll carry on... (Stenstrom, 1994, p. 37)
Q11	공유 가설 확인 [confirm shared assumptions] eg., But sometimes I can't get my breath, I have difficulty in breathing. I am not as young as I was, <i>of course</i> , and you've got to have some ailment. (Aijmer, 2013, p. 97)
Q12	발화 수정 [repair one's or others'discourse, self-correction] eg., Then there might possibly be an interaction, <i>but</i> all the time, <i>of course</i> , he'd dominate it with his grasp of the thing and if we were able to come up with anything, if he took hold of it, then he'd elaborate it in his own particular way. (Aijmer, 2013, p. 95)

다음으로, 표 2의 기능으로 발화된 LY를 포함하고 있는 문항을 확보하기 위해 COCA와 SOAP의 구어 텍스트를 발췌하였으며,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이 실제 구어 담화로 구축되었다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코퍼스에서 발췌한 구어 텍스트를 각색 없이 활용하였으며, 문항 타당성 확보를 위해 영어 모어 화자¹¹⁾에게 검사지의 전 문항을 검수 받았다.

아래 표 3는 DMIT 문항의 예시이다. LY가 볼드 · 이탤릭체로 구분되어 있으며, 문맥상 LY를 발화한 화자의 의도로 ‘가장 적절해 보이는 것’을 4지 선다형 보기에서 고른다. 또한, 각 문항 아래에 지문의 출처, 년도, 주제를 제시하였다. 표 3에서 발화된 *totally*를 살펴보면, 화자가 담화 종결을 의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4개의 보기 중 1번(Maysa wants to wrap up her talk)이 정답으로 가장 적절하다.

표 3. DMIT 문항 예시

Q8.	
Maysa:	You know, people in my family really said you got to keep going. And basically, what I did - just God kept sending me opportunities, like, lifelines almost. And the industry kept sending me these little ropes to tie knots with, you know. And I would just go from one rope to the next. Something inside of me, in my DNA, whatever, would not let me give up, <i>totally</i> .
Michel:	Let's hear a little bit more from "Quiet Fire." This is the song, again, that's earned you your Grammy nomination.
1. Maysa wants to wrap up her talk. 2. Maysa wants to get Michel's attention. 3. Maysa wants to maintain her turn to talk. 4. Maysa wants to change the subject of their conversation.	
Date	2014 (140109)
Title	Singer Maysa On Applying To Home Depot And Earning A Grammy Nomination
Source	(COCA) SPOK: Tell Me More 11:00 AM EST

마지막으로, 본 실험에서 나타날 수 있는 편차, 편향, 오류 등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KNNS 4명과 미국 영어 모어 화자(이하 ANS) 1명, 총 5명을 대상으로 예비 실험을 실시하였다.¹²⁾ 예비실험에서 발견된 몇몇 오류를 정정 및 보완함으로써 본 실험의 질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

11) 언어학 박사 학위 소지자.

12) 예비 실험자는 본 실험에 참여하지 않았다.

3.2. 실험 진행

3.2.1. 연구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연령, 성별, 영어권 학습 경험, 사용 언어권(한국어/영어), 영어 능력 (TOEIC 점수 활용/미국계 원어민) 등의 배경 요소를 고려하여 한국어 모어 화자 20명과 미국 영어 모어 화자 20명, 총 40명을 선정하였다. 표 4는 전체 피험자 정보를 요약한 것이다.

표 4. 전체 피험자 정보 요약

구분	국적	학습 환경	영어 능력	연령대	소속 기관	성비	인원
KNNS	대한민국	EFL	TOEIC 751-850점	20대	K대학교	5:5	20명
ANS	미국	N/A	원어민	20대	K대학교	5:5	20명

KNNS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 폭이 클수록 영어 학습 배경과 기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령대를 20대로 제한한다. 둘째, 성별에 따른 담화표지 사용에 잠재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성비를 5:5로 한다.¹³⁾ 셋째, 예비실험의 검사지 평균 점수가 중간 값 이하(49.75점)를 보였기 때문에 하위권 영어 학습자가 실험에 참여하는 것이 무의미할 것으로 판단하여, 국제공인인증어학시험인 TOEIC에서 일정한 어학 성적(750점 이상 851점 미만)을 보유한 자만 참여하도록 한다.¹⁴⁾

표 5. KNNS의 TOEIC 점수 분포

성별	인원	평균 점수	최저점	최고점	표준 편차
남	10	828.5	770	850	28.7
여	10	813	785	850	19.7
전체	20	820.75	770	850	25.8

표 5의 KNNS의 전체 TOEIC 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최저점 770, 최고점 850으로

13) 임규홍(2014)과 김혜영(2011)의 담화 관련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담화표지 사용 양상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H. Lee(2006)에서는 성별에 따른 담화표지 사용 양상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14) 한국 TOEIC 위원회에서 제시한 2018년 기준 한국의 TOEIC 평균 점수는 676점이다. 따라서 하위권 TOEIC 점수 보유자를 배제하고, 한국인 피험자 간 영어 실력의 동질성을 확보를 위하여 실험 참여 자격 어학 점수를 750점 이상 851점 미만으로 제한하였다.

중위권 이상의 영어 능숙도를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들의 표준편차는 25.8로 한국인 피험자 간 영어 능력의 차이가 크지 않다. 넷째, 보유한 공인인증어학시험 점수가 비슷하더라도 ESL이나 EFL과 같은 영어 학습의 환경적 요인으로 참여자간 상이한 영어 실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직 국내에서 영어를 학습한(EFL) 자로 본 실험의 참여 자격을 제한한다. ANS의 경우 미국 국적의 영어 모국어 화자로 실험 참여 자격을 제한한다. 연구대상어 선별 및 검사지 제작에 미국현대영어말뭉치인 COCA와 SOAP을 이용하였을 뿐 아니라, 영어 담화표지 사용 양상이 각 문화권에 따라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어권을 제외한 연령, 성비, 소속 기관은 한국인 피험자 자격과 동일하게 제한하였다.

3.2.2.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본 실험은 1차로 2019년 10월 2일부터 14일까지 약 2주간, 2차로¹⁵⁾ 2020년 9월 21일부터 9월 26일까지 약 1주일간에 걸쳐 서울의 K대학교 도서관에서 실시하였다. KNS와 ANS의 수는 각각 20명으로 총 40명이 본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에 소요되는 시간은 피험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략 20~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실험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 분석은 IBM SPSS ver 22.0을 이용하였다. 검사지 전 문항에 대한 총점과 정·오답을 기준으로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과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으며, 본 실험의 모든 통계 신뢰 수준은 $p<0.05$ 를 기준으로 하였다. 추가적으로, 실험 결과에 대한 해석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험 후 문항의 오답을 선택한 근거와 관련하여 피험자들과 개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4. 실험 결과 및 논의

4.1. 연구 가설 검증

KNNS와 ANS 간 LY 담화표지 이해 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두 피험자 집단을 구분하여 총점을 기준으로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ANS는 85.78 ± 10.87 , KNNS는 60.76 ± 9.40 으로 통계적 유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p<.000$).

15) 1차에서 KNNS 20명, ANS 1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나, 익명의 심사자로부터 KNNS와 ANS의 비율을 맞추라는 권고를 받아들여, 2차로 ANS 10명을 대상으로 추가 실험을 실시하였다.

표 6. DMIT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test 결과

	피험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value
총점	ANS	20	85.780	10.872	-7.783	.000
	KNNS	20	60.765	9.402		

다음으로, 두 집단의 전체 오답 개수를 교차 분석한 결과, ANS의 오답 개수는 0개 4명, 1개 6명, 2개 4명, 3개 4명, 4개 2명인데 반해, KNNS는 3개 3명, 4개 6명, 5개 6명, 6개 4명, 7개 1명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p<.000$). 교차값은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7. 집단별 전체 틀린 개수 교차표

		피험자구분		전체	$X^2(p)$	p -value
		KNNS	ANS			
전체 틀린 개수	0	빈도	0	4	27,143	.000
		틀린 개수 중 %	0.0%	100.0%		
	1	빈도	0	6		
		틀린 개수 중 %	0.0%	100.0%		
	2	빈도	0	4		
		틀린 개수 중 %	0.0%	100.0%		
	3	빈도	3	4		
		틀린 개수 중 %	42.9%	57.1%		
	4	빈도	6	2		
		틀린 개수 중 %	75.0%	25.0%		
	5	빈도	6	0		
		틀린 개수 중 %	100.0%	0.0%		
	6	빈도	4	0		
		틀린 개수 중 %	100.0%	0.0%		
	7	빈도	1	0		
		틀린 개수 중 %	100.0%	0.0%		

이상으로, 두 집단의 전체 문항 총점 및 전체 틀린 개수의 통계 검증에서 모두 통계적 유의 확률($p<0.05$)이 확인됨에 따라 본고의 연구 가설이 채택되었다.

4.2. 실험 결과 해석

4.1의 실험 결과를 해석하기 위하여 두 집단을 구분하여 전 문항의 정·오답을 교차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Q1(선행발화에 대한 태도), Q6(발언권 획득), Q7(발언권 유지), Q12(발화 정정)에서 유의미한 통계 수준($p<0.05$)이 발견되었다.

4.2.1. Q1(선행 발화에 대한 태도, attitude towards the preceding discourse)

Q1에 대한 ANS의 오답 빈도는 2인데 반해 KNNS의 오답 빈도는 12로 두 집단의 교차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p=0.002$). 교차값은 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8. Q1에 대한 교차값 결과

문항 번호	빈도 및 퍼센트		피험자 구분		전체	$\chi^2(p)$
			KNNS	ANS		
Q1	빈도		12	2	14	10.989 (.002)
	오답	피험자 구분 %	60.0%	10%	35.0%	
		전체 %	30.0%	5.0%	35.0%	
	빈도		8	18	26	
	정답	피험자 구분 %	40.0%	90.0%	65.0%	
		전체 %	20.0%	45.0%	65.0%	

Q1¹⁶⁾에서 발화된 *Exactly*는 선행발화, 즉 선행하는 명제에 대한 확실성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담화표지로, 그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t’s always synonymous, love and hatred. It’s so weird. The ones that most likely we don’t understand are different than us. *Exactly*. So we just need to come together and understand the differences in each of us politically, socially and spiritually.(사랑과 증오는 언제나 유의어입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가 가장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것들은 우리와 다른 것들입니다. *Exactly*. 그래서 우리는 다 함께 정치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우리 각자의 다른 점들을 서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Exactly*는 선행발화, 즉 선행하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인식적 태도를 나타내는 4번(The speaker agrees with the idea that we usually hate what we don’t understand. 화자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통 싫어한다는 생각에 동의한다.)이 정답이다. 그러나 KNNS의 무려 60%에 해당하는 12

16) [부록 1] 참조.

명이 1번(The speaker wants to keep his opinion about differences. 화자는 차이에 대한 그의 의견을 유지하기를 원한다.)을 정답으로 선택하였다. 정답으로 1번을 선택한 KNNS와 인터뷰에서, 대부분 LY를 단순히 ‘옳다, 정확하다’는 식의 사전적 의미로 정답을 유추하려고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ly*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옥스퍼드 영영사전¹⁷⁾의 경우, 예문 (4)와 같이 ‘a. 수치 혹은 설명의 정확성을 강조하기 위해, b. 방금 말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동의한다는 대답으로 사용’으로 해석하고 있다. 케임브리지 영한사전¹⁸⁾의 한국어 뜻풀이도 예문 (5)에서와 같이 ‘a. 정확히, b. 꼭, c. 맞아’로, 예문 (5)의 뜻풀이와 유사하다.

- (4) a. Used to emphasize the accuracy of a figure or description.
b. Used as a reply to confirm or agree with what has just been said.

- (5) a. 정확히
b. 꼭
c. (맞장구치며) 맞아.

다시 말해, KNNS는 담화표지로 발화된 *Exactly*에 대해 발화의 개념적 표현을 어떻게 조작할지에 대한 절차적인 의미가 아닌, 어휘의 표층 구조에서 드러나는 사전적 즉, 명제적 의미로 해석을 시도함으로써 선행 발화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내용의 보기 3번을 정답으로 고른 것이다.¹⁹⁾

4.2.2. Q6(발언권 획득, initiator, interjector, turn-taking)

Q6의 경우, ANS의 오답 빈도는 2인데 반해 KNNS의 오답 빈도는 13으로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p=0.001$). KNNS의 경우 정답으로 보기 2번, 3번, 4번을 고르게 선택하여 65%의 높은 오답률을 보였지만, ANS의 오답률은 10%에 불과했다. 교차값은 표 9에서 확인할 수 있다.

Q6²⁰⁾의 내용을 살펴보면, Madonna는 *Totally*를 두 번 반복하여 발언권 획득을 시도한 후에 자신의 말을 이어갔다. 앞서 2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신의 말차례를 시작하기 위해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거나 중단시키는 행위는 적지 않은 체면위협행위가 될 수 있다(이원표, 2001).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Q6에서 Madonna가 발화한 *Totally*. *Totally*.는 King의 말을 중단시킨 것에 대한 체면 손상을 완화하면서 일종의 말 끼어들

17) <https://www.lexico.com/en/english>

18) <https://dictionary.cambridge.org/dictionary/english-korean>

19) 해당 인터뷰 내용은 [부록 2] 참조.

20) [부록 1] 참조.

표 9. Q6에 대한 교차값 결과

문항 번호	빈도 및 퍼센트		피험자 구분		전체	$X^2(p)$
			KNNS	ANS		
Q6		빈도	13	2	15	12.907 (.001)
	오답	피험자 구분 %	65.0%	10.0%	37.5%	
		전체 %	32.5%	5.0%	37.5%	
		빈도	7	18	16	
	정답	피험자 구분 %	35.0%	90.0%	62.6%	
		전체 %	17.5%	45.0%	62.5%	

기를 시도한 보기 1번 Madonna tries to interject King's talk.(Madonna는 King의 대화에 끼어들기를 시도한다.)이 정답으로 가장 적절하다.

4.2.3. Q7(발언권 유지, a filler, delaying-tactic, turnholder)

표 10에서 보는 것과 같이, Q7에 대한 ANS의 오답 빈도는 2인데 반해 KNNS의 오답 빈도는 1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p=0.001). 문항 결과를 살펴보면, ANS의 대부분은 일관되게 말차례 유지를 의도했다는 보기 2번(Cliton wants to maintain his turn to talk.)을 정답으로 선택한 것과는 상대적으로 KNNS는 정답인 보기 2번뿐 아니라 보기 1번, 3번, 4번을 고르게 선택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KNNS가 해당 LY의 담화표지 기능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KNNS 오답자와의 인터뷰 결과에서도, 문항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그냥 (직관적으로) 정답 같은 보기를 골랐다는 소감이 가장 많았다.

표 10. Q7에 대한 교차값 결과

문항 번호	빈도 및 퍼센트		피험자 구분		전체	$X^2(p)$
			KNNS	ANS		
Q7		빈도	11	2	13	12.333 (.002)
	오답	피험자 구분 %	55.0%	10.0%	32.5%	
		전체 %	27.5%	5.0%	32.5%	
		빈도	9	18	27	
	정답	피험자 구분 %	45.0%	90.0%	67.5%	
		전체 %	22.5%	45.0%	67.5%	

예문 (6)에서 화자는 전치사 on 뒤에 이어질 어휘 항목인 hatchway가 쉽게 떠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치사 on과 명사 hatchway 사이의 공백을 *well* 이나 *you know*와 같은 담화표지로 채우고 있다. Jucker(1993, p. 448)는 이러한 담화표지 기능을 “지연 장치(delay device)” 혹은 “발언권 유지 장치(floor-holding device)”로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장치는 아직 발언권을 양보하고 싶지 않다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다.

(6) on on di.. *well* on di.. *you know* on di.. hatchway there.
(Jucker, 1993, p. 447 재인용)

Q7에서 *Clearly. Clearly.*의 전후 발화 맥락을 살펴보면 선행 발화와 후행 발화 사이에서 문장과 분리되어 담화의 경계를 표시하는 동시에 두 발화의 단위를 순차적으로 묶어 주는 동시에 예문 (6)의 *well* 이나 *you know* 처럼 화자가 자신의 말차레를 유지하고자 발화한 담화표지이다. 따라서 자신의 발언권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보기 2번이 정답으로 가장 적절하다.

4.2.4. Q12(발화 정정, repair one’s or others’ discourse)

표 11에서 보는 것과 같이 Q12에 대한 KNNS의 오답 빈도는 12인이며, ANS의 오답 빈도는 3으로 통계적 유의 수준을 보인다($p=0.008$).

표 11. Q12에 대한 교차값 결과

문항 번호	빈도 및 퍼센트		피험자 구분		전체	$X^2(p)$
			KNNS	ANS		
Q12	빈도		12	3	15	8.640 (.008)
	오답	피험자 구분 %	60.0%	15.0%	37.5%	
		전체 %	30.0%	7.5%	37.5%	
	빈도		8	17	17	
	정답	피험자 구분 %	40.0%	85.0%	62.5%	
		전체 %	20.0%	42.5%	62.5%	

Q12²¹⁾의 내용을 살펴보면 David가 I do think we have to raise taxes on the top 1 percent. I think we have to have a big tax reform that raises revenue. And here... (상위 1%에게 반드시 세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세수를 늘리는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21) [부록 1] 참조.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라는 주장을 한다. 대화 상대자인 Jim이 But that's raising taxes, too.(하지만 그것도 세금을 인상하는 것이다.)라고 반문하자, David가 Right. *Exactly*.라고 발화한 직후 But과 함께 you have got to raise revenue across more than just the rich.(그러나 단지 부자들에게서 세수를 인상하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역접의 내용을 이어감으로써 상대방 발화 내용을 정정하였다²²⁾. 따라서 2번(David wants to rectify Jim's remark. David는 Jim의 발언을 바로잡기를 원한다.)이 가장 적절한 정답이다. 그러나 KNNS의 대부분은 David는 Jim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보기 3번(David totally agrees with what Jim said.)을 정답으로 선택하였다. Q12의 LY는 Q1과 동일한 *Exactly*.이다. 즉, Q1에서처럼 상당수에 해당하는 KNNS는 담화표지의 표층 구조에서 드러나는 사전적 의미 해석을 시도함으로써 선행 발화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내용의 보기를 정답으로 고른 것이다.²³⁾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영어 -ly 유형 인식전지부사를 담화표지적 측면에서 새롭게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비명제적인 의미 속성을 지닌 LY 담화표지는 발화의 개념적 표현을 어떻게 조작할지에 대한 지시로 구성된 절차적 의미만을 지니며, 이러한 의미는 화용 층위에서 정신적 표상과 관련하여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적절히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는 단서가 될 수 있다. 본고는 이처럼 LY가 담화표지로 빈번히 사용되고 있지만 한국인 EFL 학습자가 그 화용적 기능을 적절히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LY 담화표지 이해도를 측정할 수 있는 DMIT를 제작하여 KNNS와 ANS를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에서 수집된 자료를 전 문항 총점을 기준으로 독립표본 T검정과 함께 두 집단 간 전체 오답 수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분석 결과에서 각각 통계적 유의 수준이 확인됨에 따라, 두 집단의 전 문항에 대한 정오답 교차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Q1, Q6, Q7, Q12에서 유의미한 통계 수준이 확인되었으며, 오답 선택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LY를 담화표지의 기능으로 적절하게 인지했던 ANS와는 대조적으로 상당수의 KNNS가 LY 담화표지를 명제적인 내용 측면, 즉 사전적인 의미를 통해 해석하려는 경향성이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본 실험이 읽기 과업으로 실시된 만큼 듣기 과업에서 확보할 수 있는 어조, 음의 높낮이, 휴지와 같은 음운적 요소가 제공되지 않았다.²⁴⁾ 이와 같은 연구 제한점을

22) Aijemr(2013)는 인식전지부사류가 but과 결합했을 때 역접 기능을 가진 담화표지로 간주될 수 있으며, but과의 결합은 선행발화에 대한 대조의 역할을 강화시킨다고 하였다.

23) 인터뷰에서 오답을 고른 KNNS의 대부분이 *Exactly*가 지닌 사전적인 의미를 통해 정답을 유추했다는 소감을 밝혔다. 해당 인터뷰 내용은 [부록 2] 참조.

24) Hansen(1997)은 담화표지가 출현 위치와 관계없이 항상 독립적인 음조 단위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독

보완하기 위해 DMIT 문항에서 LY를 볼드·이탤릭체 및 띄어쓰기로 다른 언어 성분과 두드러지게 가시화하여 구분하였으나, 약간 명의 피험자가, 특히 4번 문항에서²⁵⁾, 대화의 분위기나 화자의 태도를 상상하면서 문항을 풀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한, 검사지 문항의 수가 다소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영어 -ly 유형의 인식전지부사가 담화표지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그 사용 양상에 경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나아가 본 논문이 향후 다양한 음운적 변수를 고려한 충분한 문항으로 구성된 후속 담화표지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국내 EFL 교육 환경에서도 LY 담화표지 기능을 적절히 교육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법의 개발을 기대해본다.

References

- 김지은. (1998). 『우리말 양태용언 구문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김혜영. (2011). 남성과 여성의 사적 대화에서 발화 특성 연구: 담화 기능 분석을 중심으로, 『언어와언어학』, 53, 89-108,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 명정희. (2018). 인식양태 구성들의 비교 연구 -판단자와 판단증거를 중심으로-, 『한국언어학회 학술대회지』, 99-112.
- 서경희. (2016). 담화표지. 김해연 (편), 『현대영어학총서9』 (pp. 121-169). 종합출판EnG.
- 서정곤, 김건희. (2009). 의존명사 구문의 양태적 고찰, 『한국어학』, 44, 177-212.
- 안동환, 이상도. (1993). 영어 서법조동사와 서법부사의 통사적 특성, 『새한영어영문학』, 28, 231-258, 새한영어영문학회.
- 이기갑. (2006). 한국어의 양태(modality) 표현, 『담화·인지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67-84, 담화·인지언어학회.
- 이은주. (2010). 한국 대학생 영어 학습자 코퍼스에 나타난 견지 부사구 (Stance Adverbials)의 사용, 『언어학』, 17(3), 347-366, 한국외국어교육학회.
- 이원표. (2001). 『담화분석: 방법론과 화용 및 사회언어학적 연구의 실례』, 서울: 한국문화사.
- 이찬규, 노석영. (2012). 의사소통에서 나타나는 울타리 표현의 특성에 관한 연구 -홈쇼핑 발화 자료를 중심으로, 『화법연구』, 21, 245-286, 한국화법학회.
- 이한규. (2011). 한국어 담화표지어 ‘예’의 의미, 『현대문법연구』, 65, 171-197, 현대문법학회.
- 임규홍. (2004). 성별에 따른 국어 담화 표지 사용 모습: 중·고등학생 이야기대화를 바탕으로, 『어문학』, 83, 93-113, 한국어문학회.
- 표시연. (2018). L2 영어 에세이에 나타난 완화표지 사용 양상: 견지 부사구와 서법조동사를 중심으로, 『응용언어학』, 34(2), 3-30, 한국응용언어학회.

립적인 운율의 단서로는 휴지(pause), 음운 축소, 다른 언어 항목과 구별되는 음조 등이 있다(Fung & Carter, 2007).

25) Q4의 경우 피험자 집단 간 교차분석에서 통계적 유의 수준을 보이지 않았다.

옥스퍼드 영영사전 <https://www.lexico.com/en/english>

케임브리지 영한사전 <https://dictionary.cambridge.org/dictionary/english-korean>

- Aijmer, K. (2002). *English discourse particles, evidence from a corpus*. Amsterdam, Netherlands: John Benjamins.
- Aijmer, K. (2013). Analyzing Modal Adverbs as Modal Particles and Discourse Markers. In Liesbeth Degand, Bert Cornillie & Paola Pietrandrea (eds.), *Discourse markers and modal particles: Categorization and description* (pp. 89-106). Amsterdam, Netherlands: John Benjamins.
- Altenberg, B., & Aijmer, K. (2000). The English-Swedish parallel corpus: A resource for contrastive research and translation studies. *Language and Computers*, 33, 15-34.
- Biber, D., Johansson, S., Leec, G., Conrad, S., & Finegan, E. (1999). *Longman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 London, UK: Pearson Education.
- Blakemore, D. (1987). *Semantic constraints on relevance*. Oxford, UK: Blackwell.
- Blakemore, D. (1992). *Understanding utterances: An introduction to pragmatics*. Oxford, UK: Blackwell.
- Brinton, L. J. (1996). *Pragmatic markers in English: Grammaticalization and discourse functions*. Berlin, Germany: Mouton de Gruyter.
- Conrad, S., & Biber, D. (2000). Adverbial Marking of Stance in Speech and Writing. In S. Hunston & G. Thompson (eds.), *Evaluation in text: Authorial stance and the construction of discourse* (pp. 56-73).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Fraser, B. (1996). Pragmatic Markers. *Pragmatics*, 6(2), 167-190.
- Fraser, B. (1999). What are Discourse Markers?. *Journal of Pragmatics*, 31(7), 931-952.
- Fung, L. & Carter, R. (2007). Discourse markers and spoken English: Native and learner use in pedagogic settings. *Applied Linguistics*, 28(3), 410-439.
- Gupta, A. F. (2006). Epistemic modalities and the discourse particles of Singapore. In K. Fischer (ed.), *Approaches to discourse particles. studies in pragmatics, Vol. 1* (pp. 244-263). Amsterdam, Netherlands: Elsevier.
- Hansen, M. M. (1997). Alors and Donc in spoken French: A reanalysis. *Journal of Pragmatics*, 28(2), 153-187.
- Hyland, K. (1998). *Hedging in scientific research articles*. Amsterdam, Netherlands: John Benjamins.
- Jucker, A. H. (1993). The discourse marker well: A relevance-theoretical account. *Journal of Pragmatics*, 19(5), 435-452.
- Karkkainen, E. (2003). *Epistemic Stance in English conversation: A description of its interactional functions, with a focus on I think*. Amsterdam, Netherlands: John Benjamins.
- Lee, H. (2005). The variable acquisition of discourse marker use in Korean American Speakers of English.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1(2), 1-88.
- Lee, Y. (2016). Aspects of discourse markers elicited from pseudo-spontaneous conversational English speech.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Studies*, 24(4), 27-51.
- Levinson, S. C. (1983). *Pragmatic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wis, D. M. (2006). Discourse markers in English: A discourse-pragmatic view. In K. Fischer (ed.), *Approaches to Discourse Particles. Studies in Pragmatics, Vol. 1* (pp. 43-59).

- Amsterdam, Netherlands: Elsevier.
- Ostman, J. O. (1982). The symbiotic relationship between pragmatic particles and impromptu speech. In N. E. Enkvist (ed.), *Impromptu Speech: A Symposium* (pp. 147-177).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 Park, E. J. (2017). The cultural aspect of discourse markers among non-native english-korean communication. *Journal of British & American Studies*, 39, 201-234.
- Park, Y. Y. (2003). Characteristics of NNS talk in oral interview. *English Teaching*, 58(3), 41-68.
- Quirk, R., Greenbaum, S., Leech, G., & Svartvik, J.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UK: Longman.
- Schiffrin, D. (1982). *Discourse markers: Semantic resource for the construction of conversation*. Doctoral dissertations,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iladelphia.
- Schiffrin, D. (1987). *Discourse marker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iffrin, D. (1998). Approaches to discourse markers. *Journal of Pragmatics*, 3(29), 355-359.
- Schourup, L. (1999). Discourse markers. *Lingua*, 3, 227-265.
- Stenstrom, A. B. (1994). *An introduction to spoken interaction*. London, UK: Longman.
- Suh, K. H. (2011). The social meanings of discourse markers in Valspeak. *Journal of British & American Studies*, 25, 157-186.
- White, A. (2011). Two Korean EFL learners' use of discourse markers in performing a spoken reformulation task. *English Language Teaching*, 23(4), 205-224.

이유라(제1저자)

박사과정

언어학과

고려대학교

02841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E-mail: byebye418@hanmail.net

유석훈(교신저자)

교수

언어학과

고려대학교

02841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E-mail: syou@korea.ac.kr

접수일자 : 2020. 10. 31

수정본 접수 : 2020. 12. 16

게재결정 : 2020. 12. 24

[부록 1] 담화표지해석 검사지 문항의 일부

본 부록은 두 집단 간 정·오답 교차분석에서 통계적 유의 수준을 보인 네 문항(Q1, Q6, Q7, Q12)을 제시한 것이다.

♣ 모든 담화에서 굵게 표시된 이탤릭체 -ly를 발화한 화자의 의도로 가장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보기를 고르세요.

♣ In all following dialogues, choose the most appropriate for the speaker's intention in uttering -ly (**bold**, *italic*).

Q1.

We feel love for our religion, our country, and then we have hatred toward another country or another religion, and then we go and fight. It's always synonymous, love and hatred. It's so weird. The ones that most likely we don't understand are different than us. **Exactly**. So we just need to come together and understand the differences in each of us politically, socially and spiritually.

1. The speaker wants to keep his opinion about differences.
2. The speaker seems to hate the ones that are different from him.
3. The speaker suggests that we should hate the ones different from us.
4. The speaker agrees with the idea that we usually hate what we don't understand.

Date 2016 (160311)
 Title HOT TOPICS
 Text Source **(COCA) SPOK: THE VIEW 11:04 AM EST**

Q6.

King: Do you do it about others?

Madonna: I'm sure I'm guilty of it, you know. I'd like to say, you know, I do find myself. I hear a little bit of a snippet of gossip about someone and then they go, "oh really?" and then I go I'm doing that. I'm doing that. That's not good.

King: Easy to get caught up in it.

Madonna: **Totally. Totally**. It's our nature. And I'm trying to work against that. So...

King: You also became a kind of a marketer, didn't you? I mean, you knew how to...

Madonna: Meaning?

King: ... merchandise yourself. You promoted yourself well.

1. Madonna tries to interject King's talk.
2. Madonna disagrees with what King said.
3. Madonna wants to change the subject of their conversation.
4. Madonna wants to return to the previous subject of conversation.

Date 2002 (20021019)
 Title Encore Presentation: Interview With Madonna
 Source **(COCA) SPOK: CNN_King**

Q7

Sawyer: Is President Milosevic a war criminal?

Clinton: Some of the things that have been done there plainly violate international law. *Clearly.* *Clearly.* The question of whether he is a war criminal depends upon what he ordered or what he knew about that he could have stopped under the Nuremberg Rules. I certainly think that should be investigated.

Sawyer: And you'll press hard for it.

Clinton: I will.

Sawyer: And sitting here on the eve of the inauguration, what does the man who will assume the 42nd presidency feel about the man who had the 41st?

1. Clinton wants to get sawyer's attention.
2. Cliton wants to maintain his turn to talk.
3. Clinton wants to switch to a new subject of the conversation
4. Clinton wants to return to the previous subject of conversation.

Date 1993 (19930114)

Title The Clintons; Terminal Condition

Source **(COCA) SPOK:** ABC_PrimeTime

Q12.

Jim: And, David, the Republicans said in response to what Mark just repeated that the president said, that's class warfare. That's unfair.

David: Yes. And, here, I think they're wrong. I do think we have to raise taxes on the top 1 percent. I think we have to have a big tax reform that raises revenue. And here...

Jim: But that's raising taxes, too.

David: Right. *Exactly.* But you have got to raise revenue across more than just the rich. We have got to raise it on the rich to some degree, but you have got.. there's just.. as I said, there's just not enough. And so you're going to have.. what you have to do is do what Bowles-Simpson suggested, which is lower the rates and broaden the base and close those loopholes. I think the Bowles-Simpson plan on tax reform had the right plan.

1. David wants to get Jim's attention.
2. David wants to rectify Jim's remark.
3. David completely agrees with what Jim said.
4. David wants to change the subject of their conversation.

Date 2011 (110415)

Title PBS News Hour For April 15, 2011

Source **(COCA) SPOK:** PBS_NewsHour

[부록 2] 인터뷰 내용의 일부

본 부록은 두 집단 간 정·오답 교차분석에서 통계적 유의 수준을 보인 네 문항(Q1, Q6, Q7, Q12)에서 오답을 선택한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 Q1의 정답으로 보기 1번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기존에 접했던 영어 시험 문항과는 다른 유형이라 정답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사전적인 의미로 정답으로 골랐다. 다른 문제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풀었기 때문에 Q1뿐 아니라 다른 문항도 많이 틀렸을 것 같다.
- 'Exactly'가 가진 의미가 '맞다, 정확하다'이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1번이 웬지 정답일 것 같았다.

(2) Q6의 정답으로 보기 2(or 3/4)번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사실 문항의 출제 의도 자체를 파악할 수 없어서 그냥 2번을 골랐다.
- 이 문제는 난이도가 높은 것 같다. 화자가 'Totally. Totally.'를 발화한 후에 대화의 주제를 바꿨다고 생각해서 보기 3번을 정답으로 선택했다.
- It's our nature. And I'm trying to work against that. So...가 앞에서 나온 대화의 주제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전 주제로 재개하려는 의도로 'Totally. Totally.'를 발화했다고 생각해서 4번을 정답으로 선택했다.

(3) Q7의 정답으로 보기 1(or 3/4)번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2번도 정답인 것 같기는 했지만, 대화의 장면을 떠올렸을 때 웬지 Clinton이 Sawyer의 관심을 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1번을 정답으로 골랐다.
- 웬지 이전 대화의 주제가 지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웬지 이전 주제로 돌아가려는 의도로 발화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3번을 선택하였다.
- 문제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그냥 4번을 정답으로 골랐다.

(4) Q12의 정답으로 보기 3번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Exactly'는 누군가의 의견이나 발언에 동의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서 David가 Jim의 발언에 동의한다는 3번이 정답인 것 같아서 선택했지만 틀렸을 것 같다.
- 주어진 보기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했다. 'Exactly'가 내포한 사전적 의미로 정답을 유추해서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내용인 3번을 정답으로 선택했다.